2026년 봄의 초입,
각자의 봄을 준비하며
만 년 : 필
Picture Credit 30기 구하연

목차

들어가며
머리글 04
호흡 05

만 년 : 필의 이야기
이은호 08
오서림 12
유라 16
안선우 22
시나브로 25
송원호 선생님 30
손지우 34
박시후 45
김동하 48
김민솔 52
힘 61

맺음말
아지랑이 65

머리글

송원호 선생님

2026년 민사고 문예창작집 발간을 축하합니다.

이번호는 디지털 발간물로는 네 번째 문집입니다. 우리 문집의 역사는 1호 머리말에 상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세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4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머리말을 쓰며, 지난 문집들의 머리말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내가 무어라 썼던가 하며, 들춰 본 문장들 중에 아래의 글이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글을 세상에 내보인다는 것은 쑥스럽고 때론 부끄러운 일이며, 따라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듯이, 글도 세상에 내보이지 않는다면 그 글은 죽어있는 글이 되고 맙니다.'

이 문집은 꾸준히 글을 써온 학생들에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지난 시간들의 노력과 성장을 확인하고 결실을 맺는 기회가 되어 왔습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긴, 결코 짧지 않은 공백을 깨고 다시 시작을 가능하게 한 만년:필 학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련과 아픔을 이겨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이 문집 제작은 '쉬어가더라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민사고의 전통이 되어 계속 진행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만년:필 지도 교사 송원호 Dream

호흡

김민솔

안녕하세요, 동아리장 29기 김민솔입니다. 만년:필 장을 역임하면서, 28기와 활동하며 꼭 동아리 문집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준비를 하다가 오늘이 되어서야 문집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집을 만들며, 더 길게는 동아리 활동을 하며 스스로에게 왜 글을 써야 하는지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문예 동아리장으로서 하기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민사고에서 글을 쓴다는 건 참 사치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매달 각기 다른 퀴즈들과 수행 평가 사이에서 저 혼자 펜을 쥐고 글을 쓴다는 건 감탄마저 나옵니다. 하지만 꽤나 역설적이게도 저는 그러기에 우리는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은 저에게 날숨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삶에 필수적이고, 영혼의 양식과도 같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일상 속, 넓게는 삶을 살아가며 한껏 들이마신 들숨들에 대한 갈무리라 생각합니다. 어버이의 사랑이 들숨이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얻는 것은 날숨일 것입니다. 계단에서 굴러 무릎에 나는 피에 놀라 한숨, 그러나 머지않아 생채기가 완치됨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저희는 한숨, 한숨. 그렇게 세상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어라 해서 별반 다를 것은 없을 것입니다. 평소 책을 읽으며 한숨, 친구와 담소를 나누며 한숨,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며 한숨, 그렇게 들이키겠죠.

그러나 사람이 어찌 들숨만으로 살겠습니까, 때론 악에 받쳐 고함을 지르기도, 숨이 막혀 울어 보내보기도, 그러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적어도 저에겐 그 날숨이 바로 글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감정에 대해 무딘 사람이라 평가받으며 살아왔지만, 돌이켜 보면 민사고에 와서 정말 자주 울었던 것 같습니다. 때론 친구에게, 먼 타지의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핸드폰에, 그마저도 없는 날엔 홀로 제 품에 묻혀 울었습니다. 저는 이런 날이야말로 우리에게 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사고에서 겪게 되는 고민 중에는 말 못 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하고자 하니 고민이라기엔 사소하고, 너무나 못생긴 마음이라 드러내기에 부끄럽고 두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모두가 같은 고민과 고통을 받는데 너무 나 하나만 칭얼대는 것인가, 친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일지 미안해진 적도 많습니다.

이렇게 숨이 벅차올라, 가슴이 답답해 죽을 것 같은 날에는 글을 써봅니다. 말로 정리하기엔 초라한 저의 감정을 종이 위에 매섭게 몰아붙여 봅니다. 그러면 비로소 호흡이 제 궤도를 찾고, 다음날과 오늘을 살아가며 날숨이 지나간 공허한 자리를 다시금 들숨들로 채우게 됩니다.

어쩌면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에 나가면 더 많은 들숨을 겪고, 더 자주 호흡이 가빠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순간을 함께 이겨내 줄 가장 든든한 벗을 얻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문집은 언제나 고마운 만년:필의 부원들의 그러한 호흡을 담고 있습니다. 숨쉬기를 잊은 저에게 찾아뵐 때면 언제나 도움과 조언을 주시는 송원호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저의 사랑을 담아 글 마무리합니다.

– 29기 김민솔 올림

만년:필의 이야기

결백

이은호

하얀 새가
하늘을 비행했다

백색 햇살은 하얀 깃털에 무지개로 해체되었고
파란 하늘은 검은 눈에 바다로 침전되었다

하얀 새는 더웠다

백색 햇살은 버거웠고
파란 하늘은 과분했다

땀이 났다

하얀 새의 하얀 날개는
무거워졌다

세상은 반와했고

하얀 천사는 파랗게 낙하했다

바다편

이은호

그래요 그대는 물고기였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과 저는 그대를 나비로 착각해 바닷속으로 뛰어들려던 당신을 미쳤다 생각했습니다.
그대가 심해를 두려워 하고 고래를 두려워 하기에
저는 그대가 나비인 줄 착각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결국 물고기였습니다. 아름다운 은빛 물고기였습니다.

아아, 저기, 바다가 보입니다. 코발트 블루의 바다가 보입니다.
육지에 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그대를 잡아두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서 바다로 가 헤엄치십시오. 자유롭게 헤엄치십시오.
저희가 한때 함께 동경했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십시오.
비록 저는 아직 육지에 발이 묶였지만 당신은 아니니,
아가미로 숨쉬는 법을 기억하고 꼬리가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이니,
바다의 파랑을 맘껏 들이십시오.

그러나 저를 잊지는 말아주십시오. 저도 당신을 잊지 않을테니.
육지에서 십수년을 버텨 다시 바다로 돌아간 물고기를 잊지 않을 테니, 우리가 함께 했던,
사랑하고 바다를 바라보고 동경하고
바다에 대해 얘기를 나눴던 시간을 잊지는 말아주십시오.

부디 아프지 말고 자각몽에 잠을 설치지도 말아주십시오.
잘 지내십시오.

저도 곧 뒤따라가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는 우리, 육지에서 아가미로
숨쉬려 괴로워하지 않은채로, 바닷속에서 웃으며 봅시다.

초록은 그대

이은호

녹빛은 아마도 오래간 순수의 상징으로 남겠지
설익은 청사과를 영원히 그리워 하겠지
여름날의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혔던 소나기
그 위에 내려앉은 발랄한 갈색
네 눈빛은 출처 모를 노스텔지어로 남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여전한 우울의 공명과 어느새 시야에서 날아간 형광 나비
그래요 바다로 날아갈 나비를 어찌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훨훨 날아 그 바다를 횡단하기를 빌어주는 수밖에

비접(緋蝶)

이은호

붉은 장작이 타고 있었고
그에 홀린 흰 나비는 열락에 젖어 다가갔고

불은 나비의 더듬이를 뜨겁게 태우며 경고했지만
흰 나비는 이미 황홀경에 빠졌기에 ㅡ

붉은 나비는 날았다

한

오서림

해저를 향하던 나를
너는 어둠에서 끌어냈다

햇귀가 살속에 스며들때
나는 비로소 바람을 삼켰다

심연에 나리가 차오를땐
온누리를 품은듯 했다

너의 뿌리가 내 땅에서 시들때
나무 초리에서 단잎이 흩어졌다

수심

오서림

얕은 물에선
많은 것들이 보였다
서로 다른 색으로
흔들리던 비늘처럼

나는
한 발 더 들어갔다
빛은 위로 밀려나고
시야는 좁아졌다

그곳엔
숨의 떨림만 남았다

가면 갈수록
세계는
한 점으로 접힌다

한번 알게 되면
다시 돌아와도
눈은
하나만
계속 더듬는다

얕은 물은 여전히 화려하지만
그 깊이를 가진 것은 없다

나는 잃은 것이 아니라
수심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봄눈

오서림

봄이 오면
나는 꽃을 피운다
예쁘게 피우려고
안쪽에서부터 힘을 쓴다

그 덕분에
세상은 잠시 환해지고
나는 그게 좋다
그래서
그 장면이 오래 가길 바란다

하지만
봄은 늘 먼저 간다
꽃은 떨어지고
떨어진 꽃잎은
바람에 부서져
가루처럼 사라진다

그걸 보내느라
나는 속이 비어간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추위가 그대로 닿는다

몇 번의 해가 지나서야
나는 알게 된다
피고 지는 일은
막을 수 없다는 걸

다음 봄을 위해

나는 이제
꽃보다 먼저
내 안을 살핀다

그래야
다시 피워도 괜찮으니까

계절

유라

나는 성급했고, 너는 어렸다
시퍼런 한기가 내려앉은 겨울이 나를 이끌었다
추위는 너를 찾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
미숙한 나는 스스로를 겨울의 끝자락으로 몰아넣었다
이미 너는 여름의 해변에 서 있는 줄도 모른 채

너는 늘 나보다 두 계절 앞서 세상을 지나친다
우리에게 공유되는 것은 무지와 지독한 자기연민밖에 없다
여름이 닿기를 기다리기다가 나의 눈사람은 녹아버렸고
너가 남기고 간 여름 복숭아는 이미 물러 터져있었다

봉오리조차 생기지 않은 초라한 우리는 힘없이 무너졌다
서로를 더럽히고 침범하다가 이내 망가져버렸다
나는 성급했고, 너는 어렸다

모순

유라

나는 미개하고 허무하고 어설프고 외롭다
돌아갈 곳 없는 나를 붙잡은 그
기어코 내 손가락에 피를 내고 만다
백색의 종이에 방울방울 피가 맺힌다
붉은색 종이가 너덜너덜해지고 정신을 잃는다

나는 어째서 이곳까지 도달하였는가
보이지 않는 출입구를 망상하며 몸부림친다
외로운 나를 안아주는 것은 나를 찌른 칼날

나는 목이 베일 것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는다
나를 둘러싼 피와 그림자가 나를 더욱 더 목조르고
나를 단단히 옭아맨 칼날이 나를 안는다
나는 이제 붉게 물든다

나를 붉게 만든 이 만이 나를 바라볼 수 있다
나를 울린 이 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고
나를 죽인 자 만이 내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예전에는

유라

한 평생의 미련과 수치와 눈물
한 인생의 굴곡과 칼날과 족쇄

아아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
목에 줄을 매고 절벽 끝에 선다
저 아래는 나를 비웃는 검은 파도
내 손에는 나의 모든 모순과 찬란

당신은 자유를 기억할 수 있는가
또는 왜곡할 수 있는가
또는 후회할 수 있는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택권이 주어진다
의사와 익사의 마지막 기로에서 묻는다
자유로써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죽음으로써 자유를 맞이할 것인가

커피

유라

이번에는 너무 달았다.

한 입 마신 커피를 개수구에 들이부었다.
검은 액체가 난잡하게 흩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헛구역질이 났다. 아무래도 설탕 스푼을 더 작은 것으로 교체해야겠다.

커피를 망친 것이 오늘로 여섯 번째다.
무슨 영문인지 타는 커피마다 향만 맡아도 메스꺼워서 견딜 수가 없다. 밖에서 커피를 사오기에 집구석에 쳐박혀 있는 커피원두가
나를 초라하게 만든다.
커피원두는 중학교 동창에게 선물로 받은 것이다.
손대지도 않을 것에 기어코 스스로 흠집을 내는 꼴을 보고 싶었던 걸까.

커피를 다시 만든다. 어쩐지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멍청한 오만이었다. 우스운 짓 하며 만들어 낸 한 잔의 커피는
입을 대보기도 전에 내 팔꿈치에 부딪혀 바닥으로 추락했다.
경멸이라는 감정을 느낀 나는 엉망이 된 바닥을 무시하고
등을 돌려 침대로 향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숨이 불규칙적으로 쉬어진다.
일주일 내내 망가뜨린 커피들이 내 폐를 채운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대로면 커피에 질식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어쩌면 그런 창의적인 죽음도 썩 나쁘지 않은
결말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썼다.
부엌 바닥에 불쾌한 검은 액체와 깨져버린 컵의 잔해들을
그대로 둔 채로, 나는 이불 속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우울과 피곤이 나를 잠식시킨다.
아무래도 커피를 한 잔 더 만들어야겠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유라

이른 아침 의사가 출근을 한다
불 꺼진 병원 앞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다
“신속하게, 한 명 씩 들어오세요-”
동네에서 재빠르고 확실하기로 유명한 이 의사에게
모두 거리낌 없이 상처를 보여준다
의사는 상처를 보지 않고도 약을 쥐어준다
모두 그의 통찰력에 감탄하며
병원은 오늘도 최고의 회전율을 기록한다

다음 날은 사람이 더 불어나 있다
가만 보니 어제 왔던 사람들이다
“약을 먹으니 상처가 심해졌어요.”
“그럼 새 약을 드릴게요. 나가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바로 문제를 해결하다니,
그는 역시 명의임이 틀림없다
만족한 환자들의 손에 든 약봉투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질문

유라

깜박이는 두 쌍의 눈이 서로를 마주한다
비좁은 기차 칸의 공기가 그렇게나 무거울 수 없었다
둘 사이의 책상이 불안으로 덜컹거렸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는다
회색 눈이 나에게 묻는다
나는 눈을 감음으로써 대답을 대신한다
그는 여전히 나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암흑에서도 그의 눈이 아른거린다
나를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아서 퍽 불쾌했다
마음을 읽는 것은 그의 역할이 아니지만
나는 왠지 그에게 있어 투명해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대화한다
그는 질문하고 나는 도망친다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나는 눈을 감아 버렸다
덜컹거리는 기차가 멈췄다
나는 다시 눈을 천천히 뜨고 그를 바라본다
대답을 해야만 한다
나는 입을 열고 세 시간의 침묵을 토해냈다
열차 바닥을 붉은 액체로 적셨다
그는 또한 바라보기만 한다
이해한다는 듯이, 이것이 답이 되었다는 듯이

기다림의 미학

안선우

미루는 것은 습관인 듯 하다.
수학 숙제를 미루고 시험 준비를 미루고 방 청소를 미루더니
사랑한다는 말도 미루게 되었다.
이제 나는 내가 미룬 말들이 만든 산을 앞에 두고
나의 말이 산에 막혀 가지 못하는 모습을 올려다 보고 있다.
아쉽게도 기다림의 미학은 사랑에 적용되지 않는가 보다.
산 앞에 있는 너는 내 말을 듣지 못하고 앞서 나가는 것을 보니.
지금이라도 산에 부딪혀 울리는 메아리로 내 말이 너에게 전해질 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 말을 듣고 너가 그 자리에 멈춰 내가 산 뒤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면 좋을텐데
이런 나의 산울림이 너에게 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종

안선우

뜻 없는 절망과 의미 없는 눈물이라지만…
상록수가 푸르른 계절에는 변치 않겠다는치기는 어디로 가고 …
이데올로기의 화사(花蛇)따라 흩날리던 하-이얀 깃발은 어디로 갔는가..
시시포스의 삶이 고달픈 까닭인가?
어쩌다 이데올로기의 화사(花蛇)는 사라지고 권력의 화사(花蛇)만 남았는가
과연 먹힌 것인가 허물을 벗은 것인가
그것- 인생의 허무함-먹힌 것인지 성장한 것인지-는 평생 모를 일이로다…
 하지만 내가 애정하던 너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고행

안선우

굶어 죽어가는 이에게 도덕을 설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배가 고픈 것이 영혼이 고픈 것보다 낫다는 말을 식사시간 가볍게 하는 이가 되고 싶지 않다.
누군가의 단장지애, 광기, 열정을 안주거리 삼고 싶지 않다.
무엇보다, 생명들의 삶을 곧 씻어버릴 나의 가벼운 눈물로 소비하지는 않겠다.
길은 걸으면 걸을수록 아픔으로만 차 있더라.
하지만 그 고통들을 휴지로 쓱 닦아 쓰레기통에 버리기에
생명이란 것은 너무나 숭고해서…
 나는 그들의 슬픔을 따라 곪아 가기를 선택한 것이다.
 나의 상처가 축축한 휴지 한장과는 조금 다르기를
모든 생명에게 삶이 자의적 선택이기를
너의 밤이 너무 외롭지는 않기를
차가운 하늘 아래 빌어본다.

오늘도 5년 전처럼

정민영

오늘도 5년 전처럼 행동했어
아무것도 변한게 없더라, 나도, 너도.
그래도 그게 마음이 편해 나만 안 바뀐 건 아니라서

내 마음이 힘들단 핑계로소중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했고,
그 사람들이 날 떠나지 않을 거란 걸 알아서
별로 내게 크게 가치없는 사람들이 떠날까 눈치보며 행동했어

5년 전처럼,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붙잡으려 나를 망쳤고
5년 전처럼,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며 나를 망쳤고
5년 전처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사랑에 목말라서 나를 망쳤어

오늘 딱 5년 전처럼 행동했어

시

정민영

내가 알게 된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썼던 시들이
사실은 아주 편견과 틀에 맞춰진,
그 무엇도 내딛은 것 하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의 시를 읽었을 때,

누군가는 나의 시점을 노래하기 위해,
누군가는 나의 감정을 노래하기 위해,
누군가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시를 쓰지만
그 시가 그 가치를 조금이나마 증명하는 것은 그 시가 나에게 통할 때,

당장이라도 눈을 들어 내 앞에 있는 창문과 거리의 블럭들과 나무들과 건물들의 기둥, 의자 하나 하나를 보는
나의 시선이 어떤지 생각해본 적 있는가.
내가 아닌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 오지만
막상 나를 진정으로 알기 위해 노력 하는 것 하나 없는 삶들이 모여 이기적인 우물을 만든다고 생각해본 적 있는가

의미를 가지지 않고 쓴 시에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유없이 사랑하는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 아닌 것처럼,
너를 지나쳐 앞질러가는 것들도 누군가에게 뒤쳐지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정해준 가치가 없어도 너라는 사람의 가치는 어딘가 항상 밝게 존재하는 것처럼,
매일 같은 하루를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사실은 잔인하게도 자신의 때와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흠칫하는 상처들이 무언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사실은 굳은 살들을 채우기 위함인 것처럼,
엮어서 복잡하게 만든 것들에 고지식한 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회가
단순함을 무시해서 단숨에 불어버린 바람에 사정없이 흔들리며
복잡한 안경이란 이름의 헛소리를 늘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나로 인해 변하는 세상을 발견하려 애쓰고 있는 것일까

메멘토 모리

정민영

저들은 왜 우는 것일까요 아버지?
아,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었을까요
저도 저렇게 울었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들을 돌아보며 마음껏 울었는데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순수하게 행복해 하고 있는 것을 저들이 모르는 걸까요?
아마도 알겠죠?
그냥, 내 욕심에 목이 메어 우는 걸 외면하는 걸지도 몰라요 제가 그랬거든요
있죠, 저는 어떤사람이 내가 이 곳에서 떠나가면 아버지의 나라로 간다고,
드디어 진정으로 행복해진다고 기뻐해달라고, 밝게 웃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근데 인간의 뇌는 너무 기쁘면 눈물을 흘려서 내 감정이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조절한대요
그땐 그래서였나봐요 그래서 그렇게 심장이 뜨거웠나봐요
가끔은, 내가 가지 못하는 선을 잘 구별하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한 사람 당 정해진 총량의 사랑을 아버지께서 흩뿌려서 살게 하셨으니 그날에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가득 차길.

인도 홀리

정민영

색색이 마치 억압 당했던 듯이 터져나온다
어디에서 어떻게 갇혀 있었던 걸까

사라지더라도 찬란하게 하늘을 더럽히고 밟히는 것을 더욱 기뻐할 아이들을
그 색을 오래 기억하겠다며 조심조심 꽉 묶어놓고 터지기 전까지 그 존재를 까먹을 거면서.

흙에도 눈에도 뒹굴어보며 작은 입자 하나하나 입맞추어 내가 마치 그들이 된 것처럼
나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위해 노력하기를 갈망하는 색들이 서로를 안아주며 하나가 되길 바라는 눈물을 흘린다.

숲속의 햇빛

정민영

길을 걷다 눈을 들어 옆을 쳐다보니, 나무와 바위에 부딪혀 깨진 유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눈이 부셔 눈물이 나왔지만 내 발이 멈추지 않았기에 1초라도 더 주워담으려
꾹 참고 바라봤다

마치 소리없이 우는 것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해서 슬펐다
마치 소리없이 웃는 것들의 미소가 보이는 듯 해서 기뻤다

그렇게 깨진 유리 조각 중, 내가 잊은 줄도 모르고 잊고 살아간 한 조각을 주워서
잠시 손에 꼭 쥐어보았다
그때, 내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놓아주기 싫어 조금만, 조금만 더, 하고 쥐고 보았다.

또 다시 잊고 살아가다 꼭 쥐지 않아도 그 조각이 깨지지 않을 때,
그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멀리, 또 멀리 던져보았다. 시간이 꽤 걸릴 듯 해서..

명명에 대하여1 - 무화과의 변

송원호 선생님

“아빠, 무화과가 뭐야?”
“꽃이 없이 열리는 과일!”

꽃이 피지 않고 맺는 열매가 어디 있으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작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수 천 개의 꽃을 품은 열매,
꽃이 지지 않고 맺는 열매가 어디 있으랴

명명에 대하여2 - 무궁화나무의 변

송원호 선생님

“엄마, 무궁화가 뭐야?”
“끝없이 피는 꽃!”

끝이 없는 꽃이 어디 있으랴
새벽부터 기지개를 펴고
한낮엔 수줍어 다시 웅크리기를
여름에서 가을

“그런데 무궁화는 항상 활짝 피어 있지는 않아. 아침에 피었다가 낮엔 오므라들고를 반복한대. 무궁화가 오래 필 수 있는 이유는 쉴 때를 알아서야.”

100일 동안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당신이 오늘 본 꽃이
어제 본 꽃이 아닐 수 있다.

위로 1

송원호 선생님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한 사내가
승차하며 묻는다
부천 병원 장례식장에서 서울행 막차가
몇 시에 있습니까

한참을 창밖을 보다,
한참을 시계를 보다,
창밖과 시계를 몇 번이고
번갈아 보다
부천 병원 정거장에 도착했다

그 사내는 하차하며 물었다
여기서 첫차가 몇 시에 있습니까

영혼은 있다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유

송원호 선생님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였다
초콜릿을 많이 샀다 꿈에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초콜릿을 냉장고에서 발견했다.
누가 비난했다
그래서 하나를 꺼내서 먹어봤다
초콜릿 맛이 괜찮았다.
“괜찮네”
그러자 어머니가
그럼 괜찮지
괜찮아
괜찮다

프로이트 선생, 나는 평소
초콜릿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꿈에 초콜릿을 왜 그리 많이 샀겠소?
무언가 힘들었던 나를 지켜 보시던 어머니께서
아들을 이렇게 보시다가
한 마디 하고 싶으셨던 거 아니겠소?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겨울(마지막 편지)

손지우

K에게
저는 잘 지냅니다

모르는 사이에 낮이 길어집니다
기억의 냄새를 맡아보신 적 있나요
쌓인 눈은 좀체 녹지를 않습니다
봄이 와도 눈은 그대로 있겠지요

잊고 자라는건지 딛고 자라나는건지
돌고 돌아 저는 변곡점을 넘겼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만날때 못다한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이 걱정했습니다
잘 지내셨으면 합니다

괜찮다고 말할때 무너져있었다는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눈밭을 걸었습니다
찍히는 발자국을 따라걷다가
한번도 밟히지 않은 눈밭을 걸었습니다

많이 보고싶습니다
잘 지내실 것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모든것을 잃은 기분입니다
요즘 매일이 노을이 질 때의 벌판같습니다
가장 먹먹하고 희망차게 황량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실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저마저도 헷갈립니다
이 계절도 이제는 쉽게 거울을 마주보는
그렇게도 낯설고 애틋한 형체가
언제나 여기에 있었다는 걸 믿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다시 편지하겠습니다
다시 따뜻한 온도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정말로
걸어갈 수 있는 길만이 남았습니다
변곡점을 넘는 순간 세계는 달라지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편지를 꼭 쥐고
가장 높은 산을 올랐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저는 살아서 나왔나봅니다
고드름같은 바닥만 밟고
선생님의 편지만 꼭 붙들고

아직도 저는 그대로입니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요
세상을 그리고 절 견디는 방법을
사실은 덜 아프게 모든걸 사랑하는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살에는 추위에 감기에 걸린걸까요
갈길은 아직도 멀지만
더 이상 겨울도 걸음도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따스할 줄 제가 알았을까요

변곡점입니다

저는 편안합니다
꼭 편지하세요

사랑하는 제자가

안부

손지우

조금 잠을 자고 조금 끼니를 챙겼습니다
느린 박자의 노래들을 듣는 중입니다
어릴 때 들었던 제목들을 다락방에서 꺼내와
먼지나는 레코드에 굳이굳이 돌려보는 중입니다
사랑이 지독한 감기라는 말을 여러번 곱씹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지독한 사랑을 하는 중인건가요

조금 늦어진 박자로 타이레놀을 먹었습니다
잠깐 졸았다 깨는 잠같은 삶을 살줄 알았던
어리디 어린 혐오를 써내려간 일기장을 읽는 중입니다
그때의 어린 나는 이렇게 오래 살 줄도 몰랐겠지요

구차하게 길어져서 미안해요 짧은 요약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감기에 걸렸지만 잘 지냅니다
나는 내 어제도 봤고 나의 내일도 훔쳐보다가
오한이 지나면 또 훌쩍 자라날랍니다
지독한 삶을 이리도 예뻐할 줄 몰랐던가요?

참을 수 없는 마음

손지우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못했습니다
어쩜 내 존재는 이리도 거북살스러운 것인지요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겨울이 한번 돌아올때마다
죽이지 못한 미련들을 다시금 마주합니다

나는 차마 견딜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나를 견딜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사람이 사랑받을수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견뎌낼 수가 없어…

내 안으로 낚싯바늘같은 양 팔을
떼어낼 수 없게 붙들고
그렇게 내 안으로 안으로 오므라듭니다

나는 혐오를 태워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지적 허영으로 곪고 들어찬 위선자일뿐
나를 싫어하는 이들을 누구보다 이해합니다
그들은 단지 내가 그러는 것처럼…

나는 언제까지 도망칠 수 있을까요
내가 도망치는 것들은 내게 해답을 줄까요

모든 무대의 커튼이 내려가고
막들이 걷히는 극과 닫히는 극이 분간되지 않을 때
나는 별처럼 외롭고 추해집니다

무언가 타버리는 감각에 익숙해지고

무언가 토해내는 대화들이 눈에 익다가
나는 그렇게 수많은 설익은 담배개비들을
생으로 삼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냉증과 오한에 시달리는 사랑에게 사망을 선고하면
내게는 그렇게 증오와 수치만이 남아
내 핏줄을 고요히도 흐르고 다 헤집어 놓는것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인 비밀은 어둠이 깊을수록 미안해집니다만
도무지 당신을 견딜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날 미워하지 않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도 나아진게 없습니다
하나도 나아지질 못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고 내 미움과 내 조각들을 태워
당신들에게 전하질 못하는… 사과의 편지나 쓰겠지요
아, 정말로 진심으로,
내 존재는 어쩜 이리도 혐오스럽기 그지없는지…
아… 날 떠나지 말았으면 합니다…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아… 나 위선자로서
지금까지 이 말을 그리도
엉망으로 외쳐왔었다고…)

추한 감정들의 일대기

손지우

너로써 나는 내 음악의 마지막 음표를 그려넣고
내 그림의 모든 모델들을 되찾고
내 시들의 저작권을 고칠 것이다

나는 너없이는 존재해 본 적이 없다고

나는 사랑을 발견할때마다 그 사람을 닮은 구멍을
내 속을 긁어내어 만드는 습관이 있다

괜히 더 도망가버릴 당신

내일은 내가 무슨 구실로
너를 마주칠지 계획한다
내가 잠에 들기는 글러먹었지만
너는 세상모르고 잤으면 한다
내가 한 모든 계산들을 들키지않게…

손을 잡는 상상을 하다가
보일러를 키고 싶은 여름이다

외출

손지우

사주에 물이 많댄다
우울증을 조심해 우울증을
약사 할아버지는 내 기억속에서
내가 듣도보도 못한말을 했다

나는 풍경에 쉽게 질리니
평생 어딘가로 절대 돌아오고 싶지않다
오기만 하고 싶다
저 도망가는 것들은 답을 가지고 가는건가

다시 그 기분이 왔다 무한정 떠다니는 이 기분
나는 언제쯤 다시 착륙할 수 있을까
지는 노을이 아파트 건물들을 반으로 나누는 시간
오랜만에 빌어먹을 고향이 아름다워보였다

끝나지못하는 말들은
약을 분명히 씹어삼켜도 돌아온다
내 삶은 아침이 될때마다

이젠 이 말도 안되는 소동이 즐겁다 나는
갈곳 없이 자전거를 타고
핸들을 놓으면 나를 전나무가 있는 알프스로
데려가길 아무곳이나 좋으니
언제나 희대의 도주를 하고
제 발로 돌아온다

난 당신네들이 참 좋아
어디서나는 걸까 달각거리는 소리가 났다 한참
지갑을 여니 카드는 없고 영수증만 쏟아지고
만원짜리 한장이 있었다

어디로 갔는지 알수있는 길이 없다
길이 보일듯 말듯하다 희뜩희뜩 내 눈앞에
사라졌다가 하늘로 퍼렇게 녹아든다
그래도 자랐다 근사한 하루가 또 기다린다
자전거를 타다가 세상이 핑 돌더라
보도블럭 위에서 일어나보니 해가 넘어갔다
녹슨 체인이 끊어져 있었다

원래 모든 꿈은 깨어나는 순간부터
없던 일이 된다 슬프지않은가
나는 아직도 내 중학교에게
나에게 사과하라고 종용하고 싶다

딱히 좋아하지 않는 작가의 시집을 샀다
만원을 주고 천원을 받으면
내가 참 좋아하는 순간이다
오래된 습관을 짚어 올라가면
못생긴 흉터가 만져지는

집으로 가는 길에 자전거의 핸들을 놓았다
소매가 말려들어가게 급히 겉옷을 입어도
상관없이 출발하고
양손을 떼어도 흘러가는 비행을 한다
이젠 작은 동네가 좋다 그렇지만 집으로 간다니
내 집이 어딜줄 알고
집으로 간다니…

집으로 가는 길에
꿈을 꿨다 외출을 하는 꿈을
이 지겨운 이웃사촌들을 떠나는 꿈을
난 당신네들이 참 싫어
과거의 망령같은 동창들은 나를
내게 함부로 안부인사들을 건넨다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모두 없던일이 된다는거
참 너무하지 않은가

삶아 나를 데려가주렴 멋진
말이 끊기지 않는 곳으로
삶아 데려가주렴 나를
어딘가 근사한 곳으로
저녁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야 한다면
근사한 곳으로 도망치고 싶다
어딘가 저녁이 되는 곳으로

나는 오래 정신을 못차린다
이젠 웃으며 넘기는 말이지만
너에게 질렸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 모든 반사를 사랑하고 살아가도
다시 돌아온다 삶이란 어설프고
벗어날수 없는 굴레라고 하면 슬프니
다시 온다
나는 삶이라고 부르기로했다 한참
논리에 안 맞는 결론을 씹고 다시
시를 쓰기로한다
다시 시를 쓰기로한다

길을 잃고 싶었는데 볼썽사나운 꼴로
집으로 돌아와버렸다
언제부터 고향과 집은 다르고
살아서도 유령이 될수있는가
그나저나 집으로 돌아와버렸다니
집으로 온거지 정말
하지만 내 집이 어딜줄 알고…

야구

손지우

티셔츠를 손에 쥐면
태양에서 온 열기가 묻어난다

이글이글 식어서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늘어진 얼굴이 구분 안되는 사람들

당신들은 내 인생에 나타난 적이 없어
비참한 기분으로 아래를 내려다본다

내 인생은 한번도 제대로 맞춘 적이 없다
내 인생은 늘 실패뿐이었다
더 지나본다고 뭐가 더 있을까?

한여름 열대야 폭염
한번도 본적없던 하늘의 빨강을 보았다

사랑, 기다림

박시후

기다림 없는 사랑이
향기 없는 바람이라 하더라.
그럼 기다림만 남은 사랑은
바람 없는 향기와 같은 것일까.
사람이 가지만 오지는 않는 기차역에서
하염없이 너를 기다리며
바라보기만 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순간에
너는 기다림만 남겨놓고 떠났더라.

그토록 머언 세계에서

박시후

그토록 머언 세계에서는 나는 행복합니까
그대에게 묻고자 하오나 대답은 들을 수 없음을 압니다
당신과 나의 행복은 평행선을 그려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토록 머언 세계에서 너는 행복합니까
그대에게 답을 들려주고자 하나 닿지 않음을 압니다
당신과 나의 소리는 서로 부딪혀 반향되어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토록 머언 세계에서 서로는 어떠합니까
문답하나 도착하지 못하고 흩어져 사라짐을 압니다.
남겨두고 온 것 빼고는 모두 보이지 않아
서로를 향해 손을 뻗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머언 세계에서…..

속삭임의 끝자락

박시후

귀에 닿기 전에
손끝으로 잡아
연못으로 던지고

못바닥에 겹겹이 쌓인 목소리,
그 말소리,
나를 찌를까보다 괜시리 겁을 먹어
또다시 속삭임의 끝자락
아주아주 조심스레
손끝으로 잡아
연못으로 던지고

수면 위로 떠오르는 유리조각
투명하던가 아니던가
그러나 볼 수도 없이
보기 무서워 덮어 가리고
아니 아니 그건 깨져버린 금강석 조각이던가
아니 아니 그건 보석 끄트머리던가
아니 아니 그렇지만 날카로운 유리조각일지 몰라
다시 덮어 가리고
첨벙- 울리는 소리에
아픈 흔적이던가
아니면 청명한 구원의 종소리던가
아니 아니 여전히 무서울거야
귀막고 눈가리고
귀한 것을 놓치었지만 그래도
손끝으로 잡아
연못으로 던지고

붙여질 가치 없는 제목

김동하

사랑을 하는데 이유가 있을 리가 있겠는가.

그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닮아간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 후회를 할 뿐이다.

조금은 구식처럼 보이는 전철에서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제 막 퇴근하였는지 어깨가 축 처져있었고 눈은 피곤함에 절어있었다. 약간은 풀어 헤쳐진 양복과 함께 그의 입꼬리는 내려가 있었다. 그러한 초췌한 모습과는 다르게 남자의 나이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다. 너무나도 반복되는 일상에 남자는 지쳐있었다. 남자는 변화를 원했다. 노래를 끄고 이어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이어폰은 줄로 되어 있었다. 남자는 그 긴 흰색 이어폰을 좋아했다. 별로 특별히 비싼 것도 아니지만 그 느낌이 좋았다.

남자가 고개를 들고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으나 컴컴한 역은 잔잔한 가로등의 불빛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었다. 남자는 역의 지붕에 비가 떨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푸른빛의 그 소리가 좋았다. 딱히 남자가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전철이 지나가는 그 소리를 더욱 좋아했다. 남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불규칙하게 떨어지는 물방울의 소리와 물방울들을 밀고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특별하지는 않으나 피곤하기만 한 퇴근 시간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야간으로 마지막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하루는 특히 힘들었다.

남자는 회사에서의 일을 생각했다. 이제 입사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그는 최근 1달 전에 신입 후배 하나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막 정규직을 단 그였고 특히 일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난 그였기에 많은 업무가 그에게로 쏟아져 내렸다. 그저 정규직이 되고 싶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것이었으나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었다. 불행히도 일을 좋아하는 막내로 소문이 난 그에게는 수많은 업무를 줬고 작년 10월 초부터 셀 수도 없이 많은 야근을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신입은 그에 비교되게 일을 못 하여 원래는 신입으로 갔어야 할 일들이 모두 남자에게로 몰려버린 것이었다. 이제 2월 중순이 되었음에도 그 많은 일들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여 오늘도 23시 30분에 오늘치 분량을 마치어 아슬아슬하게 00시 5분 차를 탈 수 있을 것이었다. 이제 남자는 회사에서 정규직을 단 기념으로 부장이 준 싸구려 시계를 바라보았다.

23시 57분.

주변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모두 반딪불이가 되어 핸드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네 명의 사람이 보였다. 한 명은 후드티에 헤드셋을 끼고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집에 가는 것인지 남자보다 더욱 초췌해 보였다. 한 명은 남자의 입사 동기였다. 많은 일은 남자가 했음에도 그는 착한 심성으로 늦게까지 남아 남자의 일을 도왔다. 한 명은 피곤해 보이는 갈색 코트를 입은 여자였다. 이 근처 병원에서 본 적이 있던 여자는 아마 간호사였을 것이다. 마지막 한 명은 이 중에서 유일하게 멀쩡한 표정을 지닌 사람이었다. 긴 생머리에 남자처럼 핸드폰을 들고 있지 않았다. 남자가 신기하다고 생각하던 때 그 여자가 다가왔다. 두 기둥 너머에 있던 여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남자에게 다가왔다. 남자는 다른 곳을 가는 것인가 생각하여 고개를 돌리고 다시 시계를 보았다. 그리 시간은 지나지 않았다.

"엄청나게 늦은 시간에 퇴근하시나 보네요?"

남자는 약간은 놀라 여자를 바라보았다. 정확히 남자를 향하여 한 말이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동기는 남자와 방향이 달라 철로 건너편에 서 있었고 여자의 근처에 있던 사람도 남자말고는 없었다. 남자는 당황하여 무슨 말을 할지 몰랐으나 조금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다.

"직장인들이야 다 그렇죠. 어디 저만 고생하는 것이겠어요. 그냥 받아들여야죠. 무슨 기쁜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표정이 밝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남자의 말대로 여자의 표정은 밝았다.

"기쁜 일이라 할 만한 일은 특별히 없어요. 그냥 요즘은 이렇게 사는 게 재밌더라고요."

여자의 말이 끝나고 남자는 말에 아주 큰 호기심을 느꼈다. 예전에는 남자 또한 저렇게 밝게 사는 것이 꿈이었다. 아마 많은 소년과 소녀들은 억압받음 속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렇게라뇨?"

"요즘은 그냥 딱히 일없이 제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방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삶의 변화가 좋았어요."

"딱 제가 원하던 삶이네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어른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돈 문제도 그렇고,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고 신경 써야 할 것이 점점 많아지네요. 어릴 때는 쉬웠는데."

남자는 여자의 삶이 부러웠다. 정말로 그녀의 말대로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았다. 남자는 어린 시절을 후회하면서 살아왔다. 어릴 때 더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갈 걸 하는 후회부터 시작하여 이때 그녀에게 고백할 걸 같은 문제도 많았다. 그런데도 남자는 그저 삶이 원래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남자에게 어른이란 그런 것이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에서는 방황하는 모두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녀의 말처럼 방황하는 그녀의 길은 명확해 보였다. 과연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근거가 있을까 싶기도 하였지만 남자는 그저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를 따라 지은 웃음과 함께 남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길을 잃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자는 잠시 고민하다 답하였다.

"세상에는 길을 잃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자기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직접 개척하는 길이 아니라 남이 정해준 길. 저는 아마 방황하면서 제가 걸을 길을 찾는 과정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쇼핑을 하듯이 길을 고르면서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행복이 지금 제가 웃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남자가 그녀에게 느끼는 감정은 부러움과 호감 그 사이였다. 남자가 그녀의 말을 곱씹고 있을 때, 전철이 천둥처럼 큰 소리를 내며 둘의 사이를 갈랐다. 여자는 당황한 표정이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남자는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음에 놀랐다. 시간을 보자 00시 5분이었다. 남자에게는 고민이 몰려왔다. 여자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데도 그의 평생이 발목을 붙잡았다. 단지, 몇분 대화를 나눠본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 평생을 들어온 말을 버리는 것이 정말로 괜찮을까. 이것이 옳은 길일까.

지금 놓친다면 다신 돌아오지 않을 기회였다. 찰나의 순간 동안 고민을 하였지만 한 단어를 더 생각할수록 그녀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은 점차 커졌다. 피곤하고 지루한 삶을 벗어난 그녀의 삶은 어떨까. 부러웠고 그렇게 되고 싶었다. 따라가고 싶다. 그것이 정리된 그의 생각이

었다. 곧 전철의 문이 닫히려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발을 움직였다. 수많은 반복으로 만들어진 본능이었다. 문이 반쯤은 닫혔고 다시 돌아갈 틈은 없었다.

"이름이라도!"

남자는 여자를 향해 외쳤다. 그것은 자유를 갈망하는 포효였으며 그녀를 갈망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웃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씩 벌어지며 세 글자를 말했다. 남자는 전철이 떠나는 소리에 듣지 못하였다. 문이 닫혀 소리가 막힌 까닭도 있었다.

전철을 기다리고만 있던 10분 전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른 표정이었다. 남자는 하는 수 없이 전철의 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없었다. 3칸의 사람을 모두 다 합쳐도 10명이 넘지 않을 것 같았다. 그곳에서 남자는 다시 회사와도 같은 기분을 느꼈다. 칙칙한 분위기의 사람들이 이 기차를 가득 채웠다. 이것이 맞는 것일까. 남자는 계속하여 생각했다.

순간적으로 남자는 큰 분노를 느꼈다. 그녀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이 사회에 대한 분노였다. 괴로움과 울분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짜증이었다. 남자는 해를 생각했다. 차라리 저 유리 넘어 어두운 하늘이 아니라 동이 트고 있는 하늘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남자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남자가 생각한 하늘은 밝게 타오르는 해보다는 타오르는 해와 벌겋게 물들어 버린 하늘이었다. 남자는 여자를 놓친 그 자신에게도 큰 분노를 느꼈다. 이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날 탈출로였지 않을까. 그가 자유롭게 살지는 않아도 그녀와 함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짧은 순간이었으나 이것을 사랑이라 할 수 있었을까. 만약 지금 남자의 감정만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랑이었을 것이다. 남자는 그녀의 외적 요인이 마음에 든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여자의 사상을 좋아했냐고 묻는다면, 그럴 수도는 있겠지만 그것이 핵심 이유는 아닐 것이다. 그 이유를 묻는다면 남자는 그냥이라고 답할 것이었다. 남자는 이런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학창 시절 이유가 있어 누군가를 좋아했었지만 지금 남자의 생각은 달라졌다. 진정한 사랑에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인제야 남자가 생각하기를 그녀를 따라가고 싶었던 것도 그녀가 좋았기 때문이었다. 남자는 슬슬 다시 현실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분노가 사그라들지는 않았다. 갈 곳을 잃은 분노는 또다시 여러 번 겪었던 것과 같이 남자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 십번, 많이는 수백 번이었다.

전철이 더욱 어둑한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남자가 보던 창밖의 해는 흐려지고 땅속 깊은 곳의 역이 나왔다. 그곳에서 한 번 정차하고는 한 명의 사람이 내렸다. 남자의 오른편에서 흰 헤드폰을 끼고 있던 여자였다. 여자와 닮아있었지만 삶은 달랐다. 그러나 그 차이가 다른 사람과 그녀의 가장 큰 것이었기에 너무나도 다른 사람으로 느껴졌다. 분명히 얼굴은 닮았다. 사실 남자는 눈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얼굴을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정확했다. 그렇기에 아마도 남자가 여자에게 호감을 느낀 까닭은 그녀의 성격 때문이었을 것이다. 자유가 그를 그녀에게 이끈 것인가. 아니면 그녀가 그를 자유로 향하게 이끈 것인가.

남자는 한 명이 전철을 내리는 것이 왜인지 싫었다. 그가 다시 집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었을까. 아마 남자가 어제 그리고 오늘을 또 한 번 내일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남자의 인생이었다. 한 사람이 내리고 몇 초 뒤 다시 열차가 바퀴를 움직였다. 남자는 굳이 이 낡은 전철을 고집하였다. 지하철이라는 수단도 있었다. 낡은 전철이 남자가 살아가는 반복되는 일상이 다른 사람의 일상과는 다르게 만들어 줌에 이유가 있었다. 그녀를 만나고부터 변화를 추구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남자도 여자처럼 언젠가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몰랐다. 그러나 이렇게 확실하지 않기만 한 사실은 남자에게는 없는 미래나 마찬가지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또한 그러했다.

또다시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사이, 다른 역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번 역에서는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 문밖으로 보이는 역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 텅 빈, 심지어는 두 개의 전구만이 불이 들어와 어둡기까지 한 그런 역이었다. 그런데도 사람이 사라지지 않음에 남자는 기뻐했다. 남자가 싫어했던 까닭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었는지, 그 자신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사실 남자는 누군가 없어지는 것이 싫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남자는 변화에 큰 알레르기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남자가 여자처럼 살지 못한 까닭일 것이었다.

한 번의 역에서 다시 문이 닫히고 전철의 바퀴는 더욱 힘들게 움직였다. 남자는 그렇게 생각했다.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자 남아 있던 것은 한 명의 다른 여자였다. 남자는 그 사람 또한 여자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아까의 흰 헤드폰을 낀 사람보다도 더. 그 사람은 긴 생머리를 지니고 있었고 여자와 같이 특별히 무언가를 끼고 있지도 않았다. 노래를 듣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저 남자를 향하여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남자가 당황하여 그녀를 다시 바라보니 그녀가 바라보는 것은 정확히는 남자 뒤에 있던 창밖의 광경이었다. 남자가 뒤를 돌아보니 남자도 그곳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바다와 같이 넓은 호수 위에 흰 달빛이 발하고 있었다. 반복되는 일상의 결과가, 그가 하루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주어진 보상이었을까. 남자는 그것에 이끌렸다. 다시금 자유를 바라는 그녀를 생각했다. 여자 또한 이 광경을 보고 있을까. 남자는 기대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전철을 타지 않은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 남자는 또다시 그녀에게 의문을 표했다. 그러나 여자는 이곳에 있지 않았다.

남자 또한 다시 자유를 취하고 싶었다. 어린 시절의 그 추억과 열정, 자유만 있다면 다시 취할 수 있을 느낌이었다. 그러나 남자에게는 하나의 큰 불안이 덮쳐왔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그녀가 그런 운명을 지닌 사람이 아니었는지 남자는 의심했다. 남자는 그녀와의 차이를 몰랐다. 그녀의 인생은 얼마나 큰 준비를 마쳤었을까. 그녀는 분명히 엄청난 준비를 했을 것이다. 남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강요했다. 그가 지금 자신을 위로하는 방식이었다.

그녀에 대한 존경심이 호감으로 바뀐 지는 오래였고 이제는 그 호감과 관심이 합쳐졌다. 아마도 그것은 사랑일 것이었다. 이토록 불안한 문장은 없을 것이다. 그는 이제는 인정하기 시작했다. 순간 만난 여자였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스쳐 지나갔지만 이유도 없이 그녀의 사상에 반했다고. 이제는 그녀와 대화했던 시간보다 전철에 앉아서 그녀에 대하여 생각한 지 더 오래되기 시작했다. 그 매력이 무엇인지. 사실 매력이란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아름다운지조차도, 그녀의 성격이 좋은지조차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오묘하게 좋았다. 여태까지 그 결론을 위하여 생각한 것인가. 남자는 그것마저 고민했다.

이름조차도 모르는, 도둑비처럼 내리고 사라진 그녀를 사랑했던 이야기의 제목은 붙여질 가치조차 없을 것이었다. 남자도 여자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다. 그럴 수도 있었다.

마침내 남자가 내릴 차례가 되었다.이 또한 남자의 가장 큰 후회가 될 것이었다.

시인(偲人)

김민솔

아끼던 인형이 망가졌습니다.
어머니께선 인형을 꼬메시며
새로 사는 것보다 효율적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중의 여독을 풀어야 다시금 일을 할 수 있다고
그것이 극한의 효율이라 하십니다

고등학교 은사님께서는 효율적인 기준으로 서류를 내라 하십니다.
불필요한 고민을 덜고 적당히 맞추어 사는 것이
효율적인 길이라 하셨습니다

내 벗의 서가는 먼지가 묻어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것은 다 배우고, 모르는 건 검색하면 되니
일일이 책을 탐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말합니다

그러는 나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허기진 배와 낡은 가방을 내려두고 누각에 앉으니
손에는 조부의 만년필이 쥐어 있습니다

나의 짐은 바닥에 풀려있고
배는 여전히 고파 보입니다

나는 어쩌면
시인이 되렵니다.

하루의 아침에 펜을 잡고 세상을 노래하는
고독이 되렵니다.

반드시 나는
나는 효율의 굴레에 끼어버린
시인이 되렵니다.

내 찻잔은 빈곤하고
입은 옷은 메말랐지만
속은 허기지지 않은 나는 -

이제는, 나는 어쩌면 시인이 되렵니다.
하루를 펜에 바치고, 세상을 느리게 노래하는
삶을 꿈 꾸려 합니다.

내 찻잔은 비었고
내 옷은 낡았지만
내 안의 갈증은 줄어들지 않았으니 ㅡ

飛效率적인 시인이 되렵니다.

가을을 사랑한 베짱이

김민솔

긴 여름 내내 나는 노래를 불렀다

볕 좋은 날,
느긋하게 달아오른 땅에 한껏 몸을 비비며

바람은 내 반주가 되고
계곡물은 내 콧노래를 실어 나른다

흘러가는 모든 게 좋았다

폴짝 엄마 몰래 뛰면 닿을 듯한
저 샛푸른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도

어미에게 갓 배운 날갯짓으로
허공을 가르는 아기새도

누가 접었는지 모를 종이배를 싣고
둥둥 떠내려가는 시냇물도

그저 제 갈길을 찾아 흐르는 모든 것을 사랑했다.

저 앞에 개미들은 바쁘게 왔다 갔다.
참으로 딱할 망정이다.

청명한 하늘에 한번도 담기지 못한 개미의 눈은
항상 때가 묵어 검고 탁하였다.

나는 한참 그들을 보다
고개를 저으며 하늘을 바라봤다

쉴 때도 좀 있어야지
결국, 겨울은 멀리 있잖아.
설령 가까이 온다 해도,
짐을 챙겨 여름을 따라 이사를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새 바람이 싸늘해지고
나뭇잎들은 속삭임을 멈춘 채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내 친구 벌레들은 다들 짐을 싸 여름의 따스함을 좇아간다

나도 가야하는데,
너무 뜨겁게 익어버린 단풍 잎 하나가 더 보고 싶어 졌다.

어서 가야하는데,
다람쥐가 도토리를 까는 소리가 듣고 싶어졌다.

이제는 정말 가야하는데,
고개 숙인 벼들로 가득찬 황금의 밭이 보고 싶어졌다.

아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다.

메마른 풀밭
남은 풀벌레는
나
하나

개미와 같이 고개를 숙인다.
맑은 가을 하늘이 추위가 서린 이빨로 나를 덮칠까 무서워
땅만 바라본다.

웃음이 새어 나온다.

그래 노래를 불러야겠다.

조금은 무거워진 몸을 이끌며
아직 남은 가을의 마지막 볕 속에서 흥얼 거린다.

제목은
가을을 사랑한 베짱이
그저 우화 속의 나태한 베짱이일 뿐

뒤통수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김민솔

뒤통수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앞과 달라도 좋습니다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지 않아도 좋습니다
연습하고 꾸며지지 않은, 당신의 수수한 모습이 좋습니다

뒤통수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와 마주 보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이 좋습니다
말 없이 용기와 사랑을 전하고
눈물 없이 울 수 있는 당신의 뒤통수가 좋습니다

뒤통수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대 떠나가도 바라 볼 수가 있기에

작은 미움

김민솔

나는 한없이 작은 사람인 것 같다

너를 미워해 날붙이를 꺼내 들었지만,
작은 내 속만 긁은채 금새 집어 넣는다

누군가는 넓은 아량으로,
또 누군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각기 그들의 원수를 품어 용서한다는데

나는 온몸을 다해 너를 미워할 힘도,
나는 미운 너를 두고두고 남길 공간도,
나는 조그만 너의 미래를 저주할 말도,

나는-
어째 이마저도 없는지

하늘이 미워도 고개를 들 용기가 없더라
세상에 서러워도 욕 한번 뱉을 숨이 없더라
가슴이 답답해도 한 주먹 내리 칠 힘이 없더라

너를 미워하기엔
나는 한없이 작은 사람이라
오늘도 너가 그저 걸어가는 모습만 보고 있다.

이것은 —이 아닙니다.

김민솔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내 입술에서 흘러나온 소리가
너의 눈을 닮지 않았고
너의 숨결만큼 따뜻하지도 않는다.

너를 말하지만, 닮고자 했지만
결코 감히 담을 수 없는— 한 폭의 파동을,
조금 오래도록 머금고 있다가 뱉어 본다.

혹여 내가 이름을 부르면 눈 달린 용처럼 도망갈까,
나는 너의 향기를 부르며—그 간극을 노래하며
너의 부재를 두팔 가득 껴안는다.

모든 말은 대용품이 되고,
가룟의 이미지의 흔적만이 희멀겋게 떠오를 때.
너는 거기 없고
나는 너를 말하며 점점 멀어진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고
사랑은 그 이름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또다시 적는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랑일지도 모른다’

김현숙

김민솔

종이와 활자를 사랑하여 글을 쓰겠다하던 그때는 몰랐더랬지,
사랑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은 죄다 불행한 줄
그런 줄만 알았건만,

활자가 흐릿해 질 때 즈음에야 보이는 것은
내가 젊을 적 꿈을 좇아 도둑발로 집을 나올 때,
낡고 닳은 고무신 하나 못 신고 버선발로 날 쫓아오신 어머니의 사랑은 나였단 것을

달보다 닭보다 먼저
차디찬 새벽을 맞으며 장에 가셨음에도
부뚜막 쌀밥은 늘 따스했것만

말라버린 종이 위에 한없이 써내려 간다.
김자 현자 숙자…
둔지 너머 한 초갓집 반찬장수가 사랑에게 전하는 라-브레따

24. 09. 19

힘

탄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당장 나타나는 이미지는 청량함과 시원함일 것 같다. 탄산이 없는 탄산음료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이도 저도 아닌 맛이다. 탄산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에게 피클과 김치 대신 느끼함을 극복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필자에게 탄산은 어떤 존재일까? 과거에 탄산이라는 단어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했던 수많은 생각들을 이 글에 함축하여 써보려 한다.

필자가 주목한 탄산의 성질은 가만히 두면 탄산이 잦아들고, 작은 충격만 주어도 다시금 되살아나 격렬하게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마치 사람 같았다. 사랑 같기도 하였다. 사랑하는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탄산이 활발하게 떠오를 때를 보면, 공기방울 하나하나가 모두 열심이다. 수면에 도달하면 때에 따라 물을 튀기기도 한다. 그렇게 캔을 따기만 해도 열정적인 기체 방울의 운동이 일어난다. 사랑도 그렇다. 탄산은 오랜 시간동안 홀로 놔두면 잠잠해지곤 한다. 작은 충격으로도 깨어날 것이면서, 다시 깨어나 예전에 그랬듯 다시 격렬하게 끓어오를 것이면서. 사랑도 그렇다. 뚜껑을 오랫동안 열어두어 기포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가만히 방치해두면 어느새 탄산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단물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을 뿐이다. 사랑도 그렇다. 사랑도, 자그마하고 사소한 그 무엇에서 촉발되어 한 사람을 뒤흔들어 놓는다. 한 개인은 아득함 속으로 빠져들기 마련이다. 아무런 진전이 없으면 어느새 식어버리다가도 자그마한 희망에 다시금 불타오른다. 그렇게 언젠간 다시 끓어오르리라는 믿음 하나만 지니고 살다보면, 언젠가 마음을 완벽하게 접은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미 정열적인 감정은 다 공기중으로 날아가고, 사랑이 있던 자리에는 단물 대신 아직 아물지 않은 생채기가 남아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사람은 셋으로 나뉜다. 새로운 탄산음료를 구매하는 이, 탄산 빠진 단물에 탄산수를 들이붓는 이, 그리고 단물이 모두 말라 바닥만이 보일 때까지 음료 캔을 방치하는 이. 먼 훗날, 누군가는 같은 실수는 반복하며, 누군가는 성공적인 사랑과의 삶을 영위하며, 또 누군가는 사랑 없는 척박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내 친구 역시 탄산을 사랑시에 사용하였더라. 청량한 탄산수를 마신 후에는 갈증이 더욱이 자극된다던 내 친구. 그것이 그 친구의 사랑과는 참 닮았나보다. 사랑에 탄산을 이어 생각한 이가 우리 둘만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어찌 말로서는 형용하기 힘든 탄산의 묘한 특성 때문 아닐까.

주간일기

힘

25. 02. 09 '가(家)'

25. 02. 13 외장하드

25. 02. 15 "Leki moga pomóc. Tylko nie rozumiem, czemu musisz krasé je od swojego ojca."

25. 02. 16

Toda la felicidad que me habían prometido en las películas parcía real e infinita.

We do not remember days, we remember moments.

-Italian poet Cesare Pavese

25. 02. 18 gówno. 점진적 기대 및 미련의 단절을 꿈꾸며

25. 02. 20 Pues sí. Todos tenemos nuestra criptonita. Y parece más fácil encerrarla que enfrentarse a ella.

25. 02. 22 이촌역 2번출구 지하보도, 강화유리의 부활

25. 02. 24 그랜펄룬: 허울뿐인 커래스

25. 03. 02

그 얘기는 언제 들려줄거야? 저건 왜받은거고

선물

왜 줬던건데?

그냥

25. 03. 02 라벤더와 라일락의 차이점

25. 03. 15 We do not remember days, we remember moments.

25. 03. 16 미화된 기억 복기

25. 03. 17 D-50!

25. 03. 23 Various types to cope with.

25. 04. 06 상당히 작년 3월

25. 04. 09 Toad(fish)

25. 04. 14 I sentimenti umani sono come le opere, si possono simulare. In ogni falso si nasconde sempre qualcosa di autentico!

- La Migliore Offerta

25. 04. 27 You know, a friend of mine got some ones, roses, I mean. They were

this.. um pale lavender grey.
Sterling rose, yeah? Yeah it's beautiful. It's a thornless kind Only you know, I think that they ought to have thorns to balance it out, cause otherwise they're just.. too perfect
25. 05. 19
AP 끝났다 아ㅏ 드디어
복학까지 백일도 안남았네🥹
25. 05. 19
딱히 미화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좋은 경험이었다.
앞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다.
25. 06. 02 친구 가족(👍)
25. 06. 22 나뭇가지왕관
25. 06. 27
it's sometimes easier to write down in non-mothertongue language--in this case, English.
you are not my father, are you? i would love to live with you, having my godfather as my 'father' and that literally killed me throughout the day.
Don't be sorry, silly
I love you no matter what in the world/don't you know that? I just want you to be happy
on mardi, mercredi après-midi
Jeudi et samedi toute la journée
he works
only to speed up till one had really gained speed, to meet ballons au-delà du temps.
did they really curve that fast to have one dancing on their body
L'histoire qui a fait de moi ce que je suis aujourd 'hui
Ou une histoire sur moi qui n'existe plus
Yes, no proven rights for only needed time-8mins to save one.
25. 06. 29 #24205번째불빛
25. 07. 01 I was good. I was really good.
25. 07. 27 IKEA
25. 08. 03 note that not every farewell is beautiful

25. 08. 10 D-8

25. 08. 16 Somehow ended :)

25. 08. 30

오를수록

나에게는 분홍이 보였다. 파랑은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25. 09. 29

짜장면 7,000원

짜장면 5개 탕수육(대) 환타 군만두 10개 58,000원

탕수육 사이즈업 환타 군만두 10개 찐빵 5개

25. 11. 24 The tellables and untellables an teletubbies

25. 12. 22

Jst keep up the great work cuz you are doing such a great job

Everythings gonna be so so fine

It gotta be

25.12.30

I can't sleep.

Am I hungry? Maybe

I don't know the real reason why I cannot sleep right now.

I feel tired and sleepy, but just can't make it to the dreamland when I lie down on my bed.

Is today the time to think about anything that comes to mind, getting grip of things that is going around?

I may need some talking with friends: the real talking about the inner thoughts of mine and them.

25. 12. 31

What a year

Was soso long

Made lots of new relationships

Got to grow a lot

Thought a lot

Took lots of pictures

Made lots of memories

Wrote lots of stuff

Hope yall be happy next year :)

¡Feliz año nuevo!

아지랑이

손지우

속수무책의 여름을 보내고 시집을 엮는다
모든 일들이 여름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그냥 허수경을 좋아했는지도 모른다
어떤 일들은 서울의 겨울에서 일어났고
어떤 일들은 강원도의 여름에서 일어났다
어떤 일들은 기묘하게도 가을이었어야 하는
여름 속에서 일어났다
그래도 나는 여름을 보내고 시집을 엮는다
일어난 일들을 요약하면 여름이 돼서 그렇다
여름은 사건들이 구성하고
긴 잠에서 일어났다가
손 쓸새 없이 비집고 나가버린다
여름을 보내고 시집을 엮는다
그냥 내가 늦여름에 태어나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일어난 일들을 요약하면 사춘기가 되고
청춘이라는 진부한 단어만 되고
현실감 없는 새벽의 잠이 된다
산파극처럼 사랑하고 미워하기를 반복하다가
무더위 아래에 할말을 잃고는 썼다
속수무책의
여름을 보내고 시집을 엮는다
세상에서 가장 미성숙에 재능이 없는 여자애는
긴 정체 끝에 아마도 맞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지나고 보니 한 말이 너무 많아서
나는 묶어놓기로 한다
모든 시간과 반사는 아름답더라
당신의 여름 또한 근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만년 : 필 문집 4호 만든 사람들

지도교사 | 송원호 선생님

편집 | 김민솔

디자인 | 정민영, 윤성준, 김민솔

작품 제출자 | 송원호 선생님, 이은호, 오서림, 유라, 안선우, 시나브로, 손지우, 박시후, 김동하, 김민솔, 힘

2026년 3월 발행 (4호)